

# 멸치·고등어 어획량 뚝... 지난해 어업 생산량 2.2% 감소

### 고수온 등 기후변화 영향... 전남 전국서 감소량 가장 커 김값 폭등·생산량 감소...어업 생산금액 첫 10조원 돌파

지난해 고수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어업 생산량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국내 어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전년보다 5만 t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1만 t으로 전년 369만1000 t 대비 8만1000 t(2.2%) 감소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원양어업을 제외한 연근해, 해면양식, 내수면어업 등 대부분의 어업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내(원양 제외) 어업생산량은 313만1000 t으로 전년(328만 t)에 비해 14만9000 t(4.5%) 줄었다.

특히 전국 국내 어업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생산량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지역 총 어업생산량은 186만658 t으로 전년(191만529 t) 대비 2.6% 감소했다.

이 중 멸치, 고등어, 갈치 등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4만554 t으로 전년 대비 1만9665 t(12.3%) 줄었고, 김, 바지락 등 해면양식업

(170만4897 t → -1.7%), 송어, 우렁이 등 내수면어업(1만5207 t → -0.6%)도 모두 생산량이 감소했다.

전남 외에도 지난해 대부분의 주요 국내 어업 생산지역에서 생산량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21.2%)이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북(-17.8%), 부산(-10.8%), 경남(-6.7%), 충남(-6.0%), 전남(-2.6%) 순이었다.

다만 전남의 경우 감소폭은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감소한 생산량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남이 국내 어업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국내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남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16.2%), 부산(8.0%), 충남(4.2%), 경북(3.5%), 제주(2.4%), 전북(2.2%)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실제 생산 감소폭은 전남이 5만 t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3만6000 t), 부산(-3만1000 t), 전북(1만5000 t) 등지에서 많이 줄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금액은 오른 것으로



장흥 어민들이 김 양식장에서 무산김을 수확하고 있다. 지난해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남 국내 어업생산량이 5만 t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어업 생산금액은 전년보다 6.9% 오른 10조918억원을 기록했다. 어업 생산금액이 10

조원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K-푸드 열풍으로 수출효자 품목을

담양하던 김값이 30% 이상 폭등한 영향이 한 몫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 전남도-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전 펼친다

### 순천서 대책회의...수중전환 확대

전남도가 산림청과 지난 21일 순천 호국기념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산림청 주관으로 이마라 산림청 차장,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과장, 한국임업진흥원 유석봉 본부장, 전남도,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산림기술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5개 시·군과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 대책,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2026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주요 관문인 동부지역 집중 방제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과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해 집단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전략도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순천시 별량면의 소나무재선충병 수중전환 방제사업 현장을 방문해 방제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수중전환 방제는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된 지역을 모두베기 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산림으로 수종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산림소유자 부담없이 나무심기 100%를 지원한다.

이마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꾸준

하고 철저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산림청과 도,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데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5월 말까지 방제가 완료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적극 활용해 수중전환을 확대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산림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에 시·군별 방제전략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15개 시·군에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5월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 임신부·산모 1000여명에 전남 지리적표시 농특산물 지원

### 농관원 전남지원 지원 사업 시행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이 전남지역의 '지리적표시품 지원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리적표시품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인적요인으로 생산되는 우리나라 지역 대표 농특산물 가운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것을 뜻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원이 광주시와 협업해 임신부·산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농특산물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전남지역의 농산물 소비확산 및 생산농가 활성화를 도모,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간단한 지리적표시 관련 쿼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직접 원하

는 지리적표시품을 선택하면 등록업체가 상품을 발송한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이번 사업이 임신부·산모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남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 “농촌 저출생·초고령화 정부 대응정책 바꿔 진단부터 해결방안까지 주민들에 맡겨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정부의 농촌 저출생 및 초고령화 관련 주요 법정 계획들이 농촌의 실제 상황에 맞춰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적인 측면의 농촌 정책보다는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자리잡은 농촌의 인구 감소 추세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농촌의 주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 전국 인구 대비 농촌 거주 인구의 비율은 지난 1970년대 당시 50%를 상회했지만, 1990년대 20%대로 대폭 감소했다. 현재는 18.5%가량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같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읍과 면 등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규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고서는 "특히 농촌 주민들은 교통, 의료,

돌봄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지역민들의 경제적 역할 및 연령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농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적 활동들을 청년층이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농촌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는 연령대는 노인층이 대다수인 만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일상적인 돌봄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농촌 인구소멸 추세에 발맞춰 지난 2022년 '제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만 74조원가량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유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방법은 알고 있지만, 시골 동네라서 현실성이 없다', '대도시도 생활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는 등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처한 문제점이 다른 상황에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